

## 장애인 질적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ative Digital Divid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이 선 희\*

동북대학교대학원 교육정보학 교육학부

Lee sun-h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Informatics,  
Education Division, Tohoku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tasks to solve digital divide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gital divi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factors about qualitative digital divid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Utilization Capacity" and "Information Utilization" tend to be higher among the young, more often male, higher education level, higher income people who had som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and experience using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Addition, all failure type affected the "age", "incom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n common. Among them, influence of "a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has become stronger than the other variable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qualitative digital divide, it is required to focus as "a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 1. 문제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정보화 정책을 국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보화 추진은 사회활동이 적고 정보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손꼽히는 것이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불평등 심화이다[1].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논의되었으나, 질적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실정이다[2].

장애인의 질적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로는 이선희(2013)의 연구가 있다. 그 연구에서는 지체부자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를 대상으로 질적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했다[3]. 하지만 어느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등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질적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요인의 영향력에 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2014)'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대상자는 보건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7~69세의 장애인 2700명이며, 할당추출법(연령, 성별, 지역, 장애유형 특성)에 의해 추출했다.

장애인 질적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질적 정보격차를 구성하는 정보이용능력(컴퓨터/인터넷의 이용능력), 정보역량(컴퓨터와 인터넷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영역, 용도별 활용도)를 목적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인구학적요인(연령, 성별), 사회경제적요인(최종학력, 소득), 장애관련요인(장애유형, 장애등급, 특수교육력), 정보화교육요인(정보화교육력)을 설명변수로 설정했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유형별로 목적변수와 설명변수 간 카테고리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 3. 결과 및 고찰

##### 1) 정보이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유형별 정보이용능력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 간 카테고리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체부자유는  $R^2$  이 .353( $F=69.772$ ,  $p<0.01$ )로 유의했다. 연령( $F=375.526$ ,  $p<0.01$ ), 성별( $F=19.974$ ,  $p<0.01$ ), 최종학력( $F=110.686$ ,  $p<0.01$ ), 소득( $F=91.455$ ,  $p<0.01$ ), 정보화교육력( $F=339.490$ ,  $p<0.01$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370, 최종학력이 .161, 정보화교육력이 .1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체부자유 의 정보이용능력에는 연령, 최종학력,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는  $R^2$ 이 .350( $F=8.211$ ,  $p<0.01$ )로 유의했다. 연령( $F=71.507$ ,  $p<0.01$ ), 최종학력( $F=13.588$ ,  $p<0.01$ ), 장애등급( $F=16.676$ ,  $p<0.01$ ), 정보화교육력( $F=50.333$ ,  $p<0.01$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446, 정보화교육력이 .204으로 높게 나타나, 뇌병변장애의 정보이용능력에는 연령과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는  $R^2$ 이 .333( $F=9.295$ ,  $p<0.01$ )로 유의했다. 연령( $F=29.108$ ,  $p<0.01$ ), 성별( $F=0.038$ ,  $p<0.05$ ), 최종학력( $F=13.287$ ,  $p<0.01$ ), 소득( $F=3.181$ ,  $p<0.05$ ), 장애등급( $F=12.682$ ,  $p<0.05$ ), 정보화교육력( $F=4.481$ ,  $p<0.05$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322, 최종학력이 .238, 장애등급이 .15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시각장애의 정보이용능력에는 연령, 최종학력, 장애등급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R^2$ 이 .390( $F=32.617$ ,  $p<0.01$ )로 유의했다. 연령( $F=32.617$ ,  $p<0.01$ ), 소득( $F=10.693$ ,  $p<0.01$ ), 정보화교육력( $F=8.672$ ,  $p<0.01$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446, 소득이 .222, 정보화교육력이 .13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청각장애의 정보이용능력에는 연령, 최종학력,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장애는  $R^2$ 이 .884( $F=3.036$ )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수량화 값의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최종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장애등급이 가벼울수록, 정보화교육력이 높은 수록 정보이용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유형별 정보역량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 간 카테고리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체부자유는  $R^2$ 이 .314( $F=58.458$ ,  $p<0.01$ )로 유의했다. 연령( $F=375.526$ ,  $p<0.01$ ), 성별( $F=19.974$ ,  $p<0.05$ ), 최종학력( $F=110.686$ ,  $p<0.01$ ), 소득( $F=91.455$ ,  $p<0.01$ ), 정보화교육력( $F=339.490$ ,  $p<0.01$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372, 정보화교육력이 .1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체부자유는 정보역량에는 연령과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는  $R^2$ 이 .310( $F=6.867$ ,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 $F=71.507$ ,  $p<0.01$ ), 장애등급( $F=16.676$ ,  $p<0.01$ ), 정보화교육력( $F=50.333$ ,  $p<0.01$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408, 정보화교육력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뇌병변장애의 정보역량에는 연령과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각장애는  $R^2$ 이 .253( $F=8.322$ ,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 $F=24.276$ ,  $p<0.01$ ), 최종학력( $F=8.169$ ,  $p<0.01$ ), 소득( $F=3.517$ ,  $p<0.05$ ), 장애등급( $F=10.106$ ,  $p<0.01$ ), 정보화교육력( $F=5.589$ ,  $p<0.05$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280, 최종학력과 장애등급이 .162로 높게 나타나, 시각장애의 정보역량에는 연령과 최종학력, 장애등급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R^2$ 이 .314( $F=7.452$ ,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 $F=37.475$ ,  $p<0.01$ ), 소득( $F=3.642$ ,  $p<0.05$ ), 정보화교육력( $F=5.356$ ,  $p<0.05$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 $\beta$ 는 연령이 .432, 소득이 .139, 정보화교육력이 .125로 높게 나타나 청각장애의 정보역량에는 연령, 소득,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장애는  $R^2$ 이 .779( $F=1.143$ )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수량화 값의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최종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장애등급이 가벼울수록 정보화교육력이 높을수록 정보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참고 문헌 ■

- [1]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 조사”, 행정안전부, pp.1-86, 2015.
- [2] 조주은,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1998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8.
- [3] 이선희, “A Study on the Assignments and Factors Affecting the Qualitative Digital Divid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Human Services, Vol..5, pp.78-9, 2013.